

2024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

이기쁨 · 지상훈*

2024년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33.7만 명 증가했다. 여성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증가가 컸다. 근로형태별로는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33.5만 명 증가).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60세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고, 반복갱신 근로자도 증가했다.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는)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 명 증가했고, 건설업에서 일일근로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비전형 근로자는 감소했다.

2024년에는 전일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보다 높았다. 시간제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보다 낮았지만, 근로시간 증가로 인해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정규직보다 높았다. 전년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전일제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만 증가했고, 시간제 비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했다. 근로복지 수혜율은 전일제와 시간제 비정규직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증가세가 미미했고, 시간제 비정규직은 주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증가했다.

I. 머리말

2024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보다 축소됐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2.3만 명 증가했는데 2023년 취업자 증가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했고 임금근로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며 19만 명 증가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 증가폭이 대폭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 이기쁨=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peum@kli.re.kr),
지상훈=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anghoonjee@kli.re.kr).

이 글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 변화를 분석한다. 세부 근로형태 간 중복이 허용되어 집계되는 조사의 특성을 고려해 비정규직을 다른 근로형태와의 중복여부별로 구분한 후 2024년 비정규직 규모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또한 전일제 및 시간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II. 2024년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징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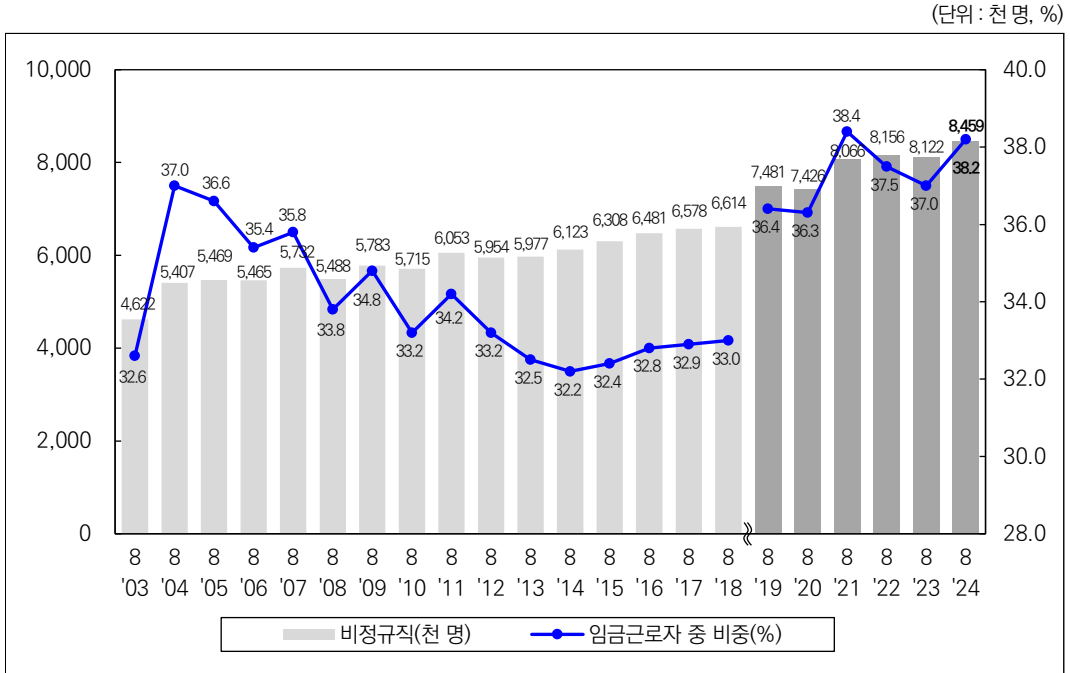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2024년 8월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33.7만 명 증가한 845.9만 명이다.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2021년 다음으로 높다. 2021년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컸던 탓에 임시직(기간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큰 폭 증가했었다. 이후 2022~2023년에는 임금근로자가 정규직 위주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두 해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비정규직이 다시 큰 폭 증가했고 정규직은 감소하면서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보다 1.2%p 증가했다.

둘째,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반복갱신 근로자),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기대불가 근로자)로 구성된다. 2024년 한시적 근로자는 전년보다 36.9만 명 증가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19만 명 증가했고, 비기간제 중 반복갱신 근로자도 18.9만 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2024년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38.3만 명 증가했다.

2024년 정규직은 전년보다 14.7만 명 감소했다(표 1 참조). 정규직은 2020~2021년에도 감소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정규직이 5.8만 명 감소했다. 여기에 제조업에서의 정규직 감소가 더해지면서 2021년 정규직 감소폭이 확대됐다(9.4만 명 감소). 이후 정규직은 큰 폭 반등하여 2022~2023년에 각각 64.1만 명, 26.4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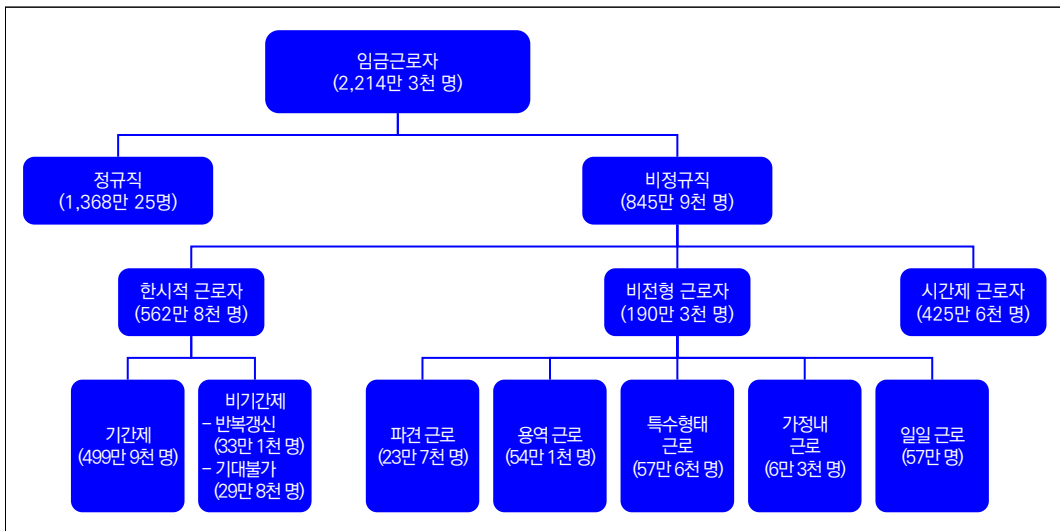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



주 : 2019년 이후의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으므로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 가능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2] 2024년 8월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구성 및 규모



주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 간 중복 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4년 8월.

〈표 1〉 정규직·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증감

(단위: 천 명, %)

	규 모(천 명)					비 중(%)		
	2022. 8. (A)	2023. 8. (B)	2024. 8. (C)	증감 (B)-(A)	증감 (C)-(B)	2022. 8.	2023. 8.	2024. 8.
임금근로자	21,724	21,954	22,143	230	189	100.0	100.0	100.0
정규직	13,568	13,832	13,685	264	-147	62.5	63.0	61.8
비정규직	8,156	8,122	8,459	-34	337	37.5	37.0	38.2
① 한시적 근로	5,348	5,259	5,628	-89	369	24.6	24.0	25.4
기간제	4,689	4,809	4,999	119	190	21.6	21.9	22.6
비기 간제	310	142	331	-169	189	1.4	0.6	1.5
반복갱신 기대불가	349	309	298	-40	-11	1.6	1.4	1.3
② 비전형 근로	2,131	1,957	1,903	-174	-54	9.8	8.9	8.6
파견	189	221	237	32	16	0.9	1.0	1.1
용역	567	534	541	-32	7	2.6	2.4	2.4
특수형태근로	561	553	576	-8	22	2.6	2.5	2.6
가정 내 근로	95	72	63	-22	-9	0.4	0.3	0.3
일일근로	814	665	570	-149	-96	3.7	3.0	2.6
③ 시간제 근로	3,687	3,873	4,256	186	383	17.0	17.6	19.2

주: 1) 임금근로자 중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와 증감은 유형 간 중복 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명 증가했으나 2024년에 다시 감소했다. 2024년 중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이 정규직 감소에 반영됐고, 숙박음식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도 정규직이 감소했다.

과거 정규직의 약 20~30%를 차지했던 임시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정규직 중 약 5~6% 정도이다. 반면 정규 상용직은 큰 폭 증가가 이어졌고, 이는 정규직 증가를 주도해 왔다. 정규 상용직은 2005~2023년 기간 평균 약 36만 명 증가했는데, 2024년에는 전년보다 4천 명 감소했다. 정규 상용직 감소는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24년 정규 상용직은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크게 감소했다. 20대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14만 명 감소했는데 정규직이 17.6만 명 감소했고, 이 중 상용직이 15.6만 명 감소했다. 20대 정규 상용직은 여성이 10.5만 명 감소했고, 산업으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건설업 등에서 감소했다. 20대 정규 상용직 감소는 신규 입직자 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근속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20대 정규 상용직 입직자 수는 2024년에 전년보다 12.2만 명 감소했다.

2024년 비정규직은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 비정규직 증가분 33.7만 명 중 여성이 27.9만 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19.3만 명이다.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세 유형 간 중복을 허용하여 조사된다. 각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비정규직을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했다. <표 2>에 나타나듯, 2024년에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한시적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A, B)의 증가폭은 크지 않다. 비전형 근로자(C)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4년 건설업 경기 침체로 건설업 종사 비중이 큰 일일 근로자가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한시적 근로이면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D)는 전년보다 증가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33.5만 명 증가했다. 2024년에 비정규직이 큰 폭 증가한 것은 이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 중복여부별 비정규직 증감 및 비중

	전년대비 증감(천 명)			비정규직 중 비중(%)		
	2022. 8.	2023. 8.	2024. 8.	2022. 8.	2023. 8.	2024. 8.
A. 한시적	124	-91	15	36.0	35.0	33.8
B. 시간제	31	211	40	15.8	18.5	18.2
C. 비전형	-165	-114	-61	13.3	11.9	10.7
D. 한시적&시간제	81	20	335	22.1	22.4	25.5
E. 한시적&비전형	-44	-16	0	5.5	5.4	5.2
F. 시간제&비전형	47	-42	-11	5.4	4.9	4.6
G. 한시&시간&비전형	15	-2	18	1.9	1.9	2.1
비정규직 전체	90	-34	337	100.0	100.0	100.0

주 : 1) A. 한시적, B. 시간제, C. 비전형은 각각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이 제거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임.

2) 비중은 비정규직=100일 때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 증가

2024년 한시적 근로자는 전년보다 36.9만 명 증가했다(표 3 참조). 2021년에도 한시적 근로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전일제 한시적 근로자(A)와 시간제 한시적 근로자(D)가 모두 증가했다. 2024년에는 한시적 근로자 증가분의 대부분이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D)다.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는 전년보다 33.5만 명 증가했다. 이 중 시간제인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보다 23.8만 명 증가했다. 전일제 기간제와 시간제 기간제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다(표 4 참조). 전일제 기간제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이 70% 이상이며,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건설업, 교육, 도소매업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연령별로도 20대부터 60

〈표 3〉 한시적 근로자 규모와 증감

(단위: 천 명)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한시적 근로자 전체 (A+D+E+G)	5,171	5,348	5,259	5,628	564	177	-89	369
한시적 근로자 (A)	2,812	2,936	2,845	2,860	236	125	-91	15
한시적&시간제 근로자 (D)	1,720	1,802	1,821	2,157	222	81	20	335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1,498	1,555	1,650	1,888	231	57	95	238
반복갱신&시간제 근로자	69	92	37	128	31	23	-55	92
기대불가&시간제 근로자	153	154	134	140	-41	1	-20	6
한시적&비전형 근로자 (E)	496	452	436	436	68	-44	-16	0
한시&시간&비전형 근로자 (G)	144	159	157	175	38	15	-2	18

주: 한시적 근로자 전체는 〈표 2〉의 벤다이어그램에서 A+D+E+G, 한시적 근로자는 A, 한시적&시간제 근로자는 D, 한시적&비전형 근로자는 E, 한시&시간&비전형 근로자는 G에 해당.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4〉 전일제인 기간제 및 시간제인 기간제 근로자 분포(2024년 8월 기준)

(단위: %)

		전일제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			전일제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
성별	남성	53.9	28.8	산업별	제조업	16.6	1.7
	여성	46.1	71.2		건설업	9.6	1.4
연령별	20대	19.1	13.7		도소매업	7.5	5.3
	30대	20.3	6.8		숙박음식업	4.5	9.2
	40대	19.2	7.8		정보통신업	4.8	1.1
	50대	20.4	12.5		전문과학기술	5.9	1.8
	60세 이상	20.6	56.9		사업서비스	5.5	1.7
					공공행정	4.2	14.7
지위별	상용직	71.3	21.3		교육서비스업	8.8	11.6
	임시직	26.0	75.6		보건사회복지	16.3	41.8
	일용직	2.7	3.1				

주: 1) 전일제 기간제=100, 시간제 기간제=100일 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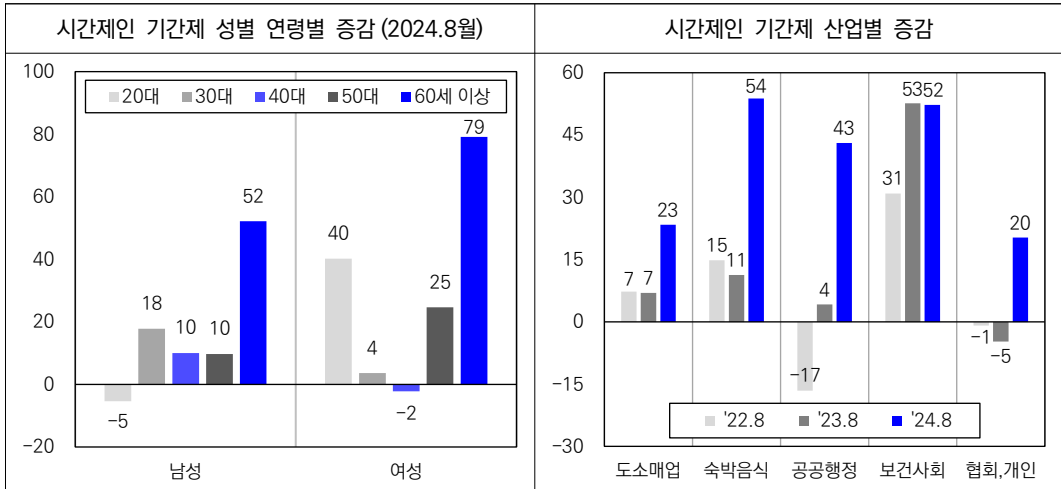
2) 〈표 4〉에는 2024년 기준으로 전일제 기간제 및 시간제 기간제 분포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과거 기간에서도 이러한 분포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4년 8월.

세 이상 연령층까지 각 연령대가 약 20% 비중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시간제인 기간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고, 60세 이상 연령층이 55% 이상을 차지한다. 시간제인 기간제 근로자가 분포하는 산업도 보건사회복지(41.8%), 공공행정(14.7%), 교육(11.6%), 숙박음식(9.2%)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시간제인 기간제 근로자 증가도 분포 비중이 큰

[그림 3] 시간제인 기간제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증감 및 산업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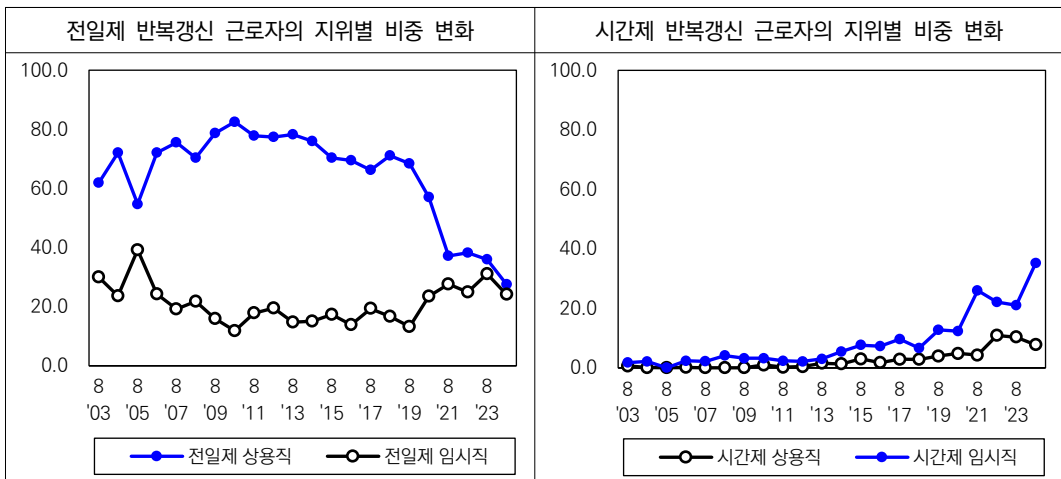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4] 반복갱신 근로자의 전일제여부별 종사상지위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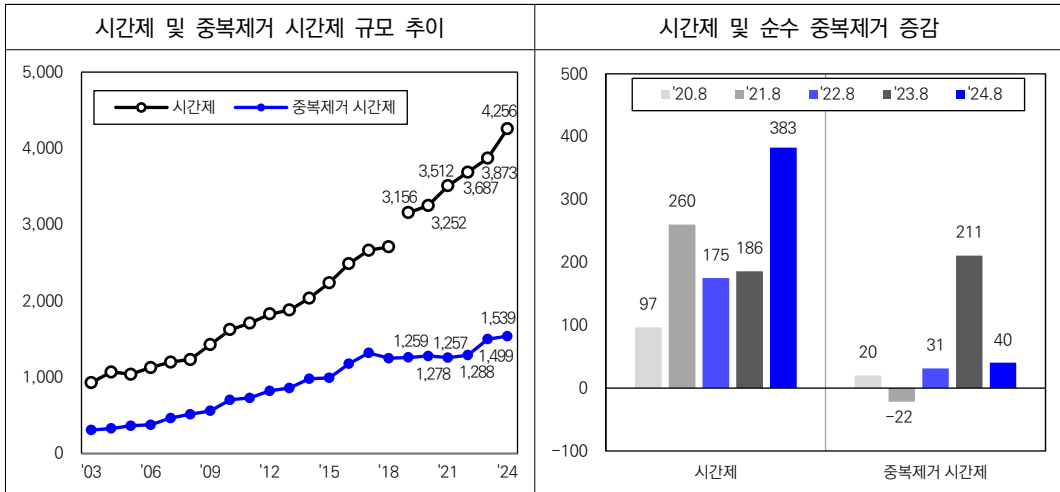
(단위 : %)



주 : 반복갱신 근로자(비전형 근로와 중복되는 근로자 제외)=100일 때, 전일제 및 시간제 반복갱신 근로자의 지위별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5] 시간제 근로 및 중복제거 시간제 근로자 규모와 증감

(단위: 천 명)



주: 1) 시간제는 <표 2>의 벤다이어그램에서 B+D+F+G, 중복제거 시간제는 B에 해당.

2)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여성, 60세 이상 연령층, 임시직에서, 그리고 산업으로는 보건사회복지 및 공공행정(60세 이상)과 숙박음식업(20대)에서 나타났다.

시간제인 반복갱신 근로자는 전년보다 9.2만 명 증가했다(숙박음식, 보건사회복지, 도소매업). 반복갱신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다. 2020년까지는 반복갱신 근로자 중 80% 이상이 전일제로 반복갱신 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 이후로 반복갱신 근로자 중 전일제 비중은 감소하고 시간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반복갱신 근로자 중 전일제 비중은 2021~2023년 중 60%대 후반, 2024년에는 약 52.3%까지 감소했다. 또한 전일제 반복갱신 근로자 중에서 상용직 비중은 줄고 임시직 비중이 늘었다.¹⁾

- 1) 반복갱신 근로는 상용 전일제 비중이 높고,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높으며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 여건도 좋아 다른 근로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알려져 왔음. 그러나 2021년 이후로는 전일제 비중이 줄어든 데다 임금 수준도 과거에 비해 낮아져 반복갱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0%대 수준임.

〈반복갱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정규직=100)〉

	2006	2010	2015	2019	2020	2021	2024
반복갱신	99.1	105.5	81.9	80.9	74.2	60.2	59.2
전일제	99.6	107.6	83.7	85.1	72.9	64.8	61.6
시간제	81.9	57.5	67.4	61.6	80.2	50.9	56.6

주: 비전형 근로와 중복되는 근로자는 제외한 반복갱신 근로자이며, 2005년은 근로자 자료 부재로 2006년을 제시함.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을 제거하고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 명 증가했다(그림 5 참조). 2023년에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폭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2024년 증가 규모도 적어 보이지는 않는다. 시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늘면서 같이 증가한 경향이 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이면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에서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 규모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했었다.²⁾ 그러나 2023년에는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는 경우가 아닌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2023년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 증가분 21.1만 명 중 약 79%가 여성이었다.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용직 위주로 증가했으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에서 증가했다. 2024년에도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업에서 증가했고, 시간제 근로자 분포 비중이 낮은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에서도 고르게 증가했다.

Ⅲ.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비정규직 근로자는 세부 근로형태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근로조건에서도 차이가 크다. 최근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바, 다음에서는 비정규직을 시간제 여부로 구분하여 전일제와 시간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수준과 변화를 살펴본다.

1. 정규직 대비 시간제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감소

2024년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못했다(표 5 참조). 전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4.6% 증가하여 정규직의 증가율보다 소폭 낮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3년 166.6만 원에서 2024년 174.8만 원으로 확대됐고,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 격차도 6,081원에서 6,422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 변화는 시간제 여부에 따라 달랐다. 전일제 비정규직의 전년대비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7.1%로 정규직보다 높았다. 전일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도 2023년 86.2만 원에서 2024년 83.9만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좁혀졌다.

2) 2019년 조사방식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영향이 있으므로 2019년 이후 기간제 한정.

시간당 임금도 전일제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정규직보다 높았다.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한시적 전일제가 7.2%로 정규직보다 높았던 반면 비전형 전일제는 5.3%로 정규직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했다.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대비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3.9%로 낮았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7.0%로 정규직(4.8%)보다 높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평소 근로시간이 1.3% 증가한 것이 월평균 임금 증가에 기여했다. 따라서 정규직 대비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2023년 29.7%에서 2024년 30.3%로 늘었지만, 시간당 임금은 62.9%에서 62.0%로 감소했다.

〈표 5〉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및 평소 근로시간의 수준 및 증감률 : 2024년

(단위 : %, 전년대비)

근로형태	전 체			전일제(시간제 제외)		
	월평균 임금 (만 원)	시간당 임금 (천 원)	근로시간 (시간)	월평균 임금 (만 원)	시간당 임금 (천 원)	근로시간 (시간)
임금근로자	312.8(4.0)	18.6(4.8)	38.0(-1.3)	359.9(5.2)	19.9(5.6)	42.2(-0.6)
정규직	379.6(4.8)	21.0(5.3)	42.1(-0.7)	-	-	-
비정규직	204.8(4.6)	14.6(5.2)	31.2(-1.7)	295.7(7.1)	16.2(7.1)	42.6(-0.3)
한시적	215.5(3.6)	14.6(4.8)	32.5(-2.5)	300.7(7.4)	16.4(7.2)	42.7(-0.1)
비전형	232.6(4.8)	14.6(5.5)	37.3(-0.9)	269.7(4.6)	14.7(5.3)	42.9(-0.6)
시간제	114.9(7.0)	13.0(3.9)	20.0(1.3)	-	-	-

주 : 1)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임. 평소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평소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됨.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을 이용하여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

3)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4)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제 비정규직은 신규³⁾로 취업한 근로자에서만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지 않았다(표 6 참고).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의 전년대비 시간당 임금은 0.5% 감소했다. 반면, 신규 전일제 비정규직과 신규 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은 각각 4.4%, 3.6%로 비슷했고, 근속이 1년 이상인 시간제 및 전일제 비정규직은 임금이 8.0% 이상 증가했다. 신규 시간제의 임금 감소가 전체 시간제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변화는 최저임금과도 관계가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를

3) 신규 취업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로 정의한다.

〈표 6〉 신규 취업 여부 및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수준과 증감률 : 2024년

(단위 : 원, %,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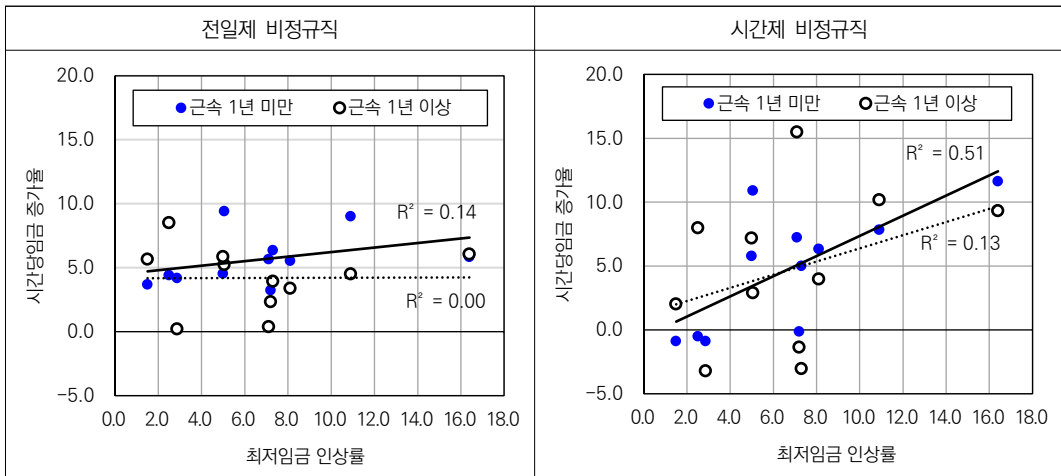
	신규 취업자(근속기간 1년 미만)			취업 유지자(근속기간 1년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시간당 임금	16,186	14,577	11,422	21,876	17,439	15,344
증가율	3.6	4.4	-0.5	5.0	8.5	8.0

주 :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을 이용하여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미만인 근로자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2024년 기준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50%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시간제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줄어든다. 또한 시간당 임금 증감률로 보아도 최저임금의 변화는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 6]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속 1년 이상보다 근속 1년 미만 시간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에 더 큰 영향(기울기)을 미치고 상관관계(R^2 값)도 더 강하다. 반면 전일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덜 받고 상관관계도 약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준다.

[그림 6]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증가율 : 2014~2024년

(단위 : %, 전년대비)



주 :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을 이용하여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4) 신규 전일제 비정규직 취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신규 시간제 근로자보다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를 감안할 때,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낮은 편이었다. 2022~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4년 인상률은 절반 수준이다. 신규 시간제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신규 시간제만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2.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른 한 측면은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와 근로복지의 수혜 여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법으로 지정돼 있다. 가입률을 계산할 때 미대상자가 분모에 포함되면 가입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관련 분석은 각 사회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 한정했다.

사회보험부터 보면 전일제와 시간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다(표 7 참조). 2024년 전일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9.4%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9.5%p 늘었다. 다만, 정규직도 과거보다 가입률이 10.5%p 증가하여 정규직과 전일제 비정규직의 가입률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반면, 시간제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2024년 1.6%p 증가했고, 10년 전보다는 19.6%p 증가해 정규직과의 가입률 격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시간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24년 기준 시간제 비정규직의 50.4%에 달한다. 미가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인데, 이들 중 42.0%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간제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10.7%로 차이가 크다.⁵⁾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두루누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취약 계층이 존재한다.

2024년 전일제와 시간제 비정규직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전년보다는 감소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다. 2024년 전일제 비정규직의 84.0%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가입률은 10년 전보다 5.3%p 증가해 정규직과 비슷한 속도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간제 비정규직 가입률은 전일제의 3배 이상으로 개선되어 2024년에는 68.1% 수준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는 직장가입 자격이 있으나 지역가입자인 근로자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자체에 가입돼 있

5) 최저임금 미만 시간제 비정규직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2024년 20.1%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시간제 비정규직의 가입률(60.2%)을 한참 하회한다.

지 않은 전일제 및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각 직장가입 대상자의 0.6%, 2.7%로 낮다. 반면 직장가입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 비율은 시간제 비정규직이 29.3%이고 전일제도 15.3%로 작지 않다.⁶⁾ 특히 시간제 비정규직 지역가입자는 10년 전보다는 18.3%p 줄었지만, 최근 몇 년간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를 점차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7〉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및 변화

(단위 : %, %p)

근로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		
	2024	1년 전 대비	10년 전 대비	2024	1년 전 대비	10년 전 대비
임금근로자	88.5(4.6)	0.0	9.2	91.1(8.4)	-0.4	5.1
정규직	96.1(1.6)	0.3	10.5	96.5(3.4)	0.3	6.4
전일제 비정규직	79.4(12.0)	-0.4	9.5	84.0(15.3)	-0.8	5.3
시간제 비정규직	49.6(13.8)	1.6	19.6	68.1(29.3)	-1.6	18.7

주 : 1) 각 사회보험 직장가입 대상자 중 비중임.

2)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자는 수급권자, 18세 미만, 60세 이상,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정 내 근로자 및 일일 근로자), 일용직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일용직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급여가 220만 원 미만(2022년부터 적용)인 근로자 혹은 상용·임시직이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급여가 220만 원 미만(2022년부터 적용)인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임.

3)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는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정 내 근로자 및 일일 근로자), 일용직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혹은 상용·임시직이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임.

4) () 안은 지역가입자 비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보험은 2021년부터 가입 대상자에 특수형태근로자가 포함되면서 비정규직 가입률이 높아졌다(표 8 참고). 하지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법적 사각지대) 비중은 최근 21%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⁷⁾ 이는 시간제 비정규직에서 고용보험 법적 사각지대 비중이 과거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전일제 비정규직의 법적 사각지대 비중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확대된 영향으로 10년 전보다 9.1%p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 비정규직은 주로 65세 이상에서 근로자가 증가하여 법적 사각지대 비중이 6.0%p 증가했다. 단 시간 고령층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시간제 비정규직에서 법적 사각지대 비중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직장가입에 비해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7) 정규직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의 대부분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다. 이들은 정규직 제외자의 87.6%를 차지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그림 7 참조). 전체 비정규직 대상자의 가입률은 2018년까지는 55%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9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증가 속도도 빨라서 2024년에는 69%에 이르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입률 차이는 2018년 32.6%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4년 25%까지 줄었다.

〈표 8〉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전일제	시간제
2020	3,409 (16.7)	1,539 (11.8)	1,870 (25.2)	797 (19.1)	1,073 (33.0)
2021	3,197 (15.2)	1,597 (12.4)	1,600 (19.8)	482 (10.6)	1,118 (31.8)
2022	3,430 (15.8)	1,686 (12.4)	1,744 (21.4)	558 (12.5)	1,186 (32.2)
2023	3,450 (15.7)	1,729 (12.5)	1,721 (21.2)	497 (11.7)	1,224 (31.6)
2024	3,553 (16.0)	1,725 (12.6)	1,828 (21.6)	445 (10.6)	1,383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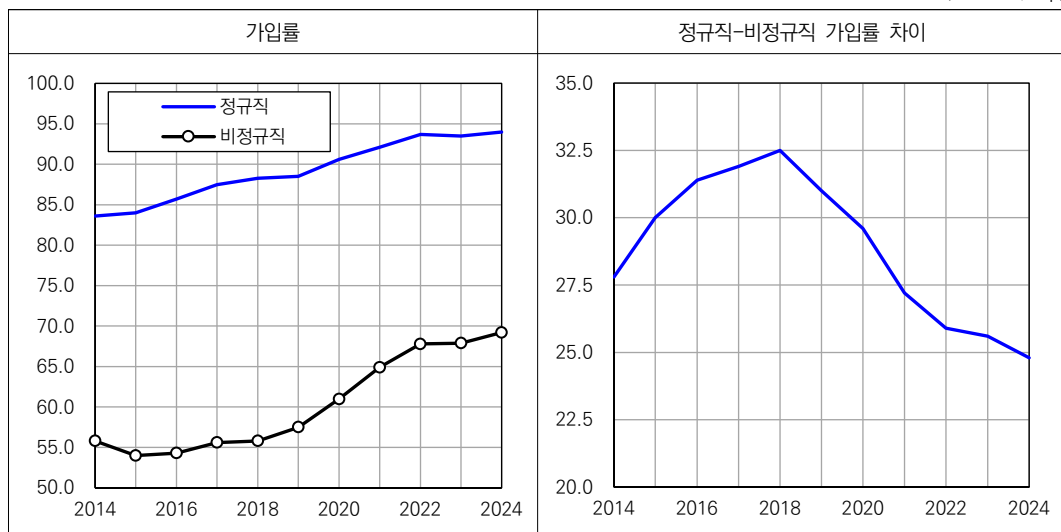
주 : 1)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65세 이상, 특수형태 근로자(2020년까지 적용), 상용·임시직이면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일용직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혹은 가사서비스업(산업 분류 T) 종사자임.

2) () 안은 각 근로형태별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7〉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및 차이 변화

(단위 : %, %p)



주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중 가입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은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고 있다. 2024년 전일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83.0%로 전년대비 1.6%p 증가했고, 2014년에 비해서는 14.0%p 증가했다. 전일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입률 격차도 2024년 11.0%p까지 축소됐다. 2024년 시간제 비정규직 가입률은 전년보다 2.5%p 증가한 51.2%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가입률이 24.5%p 늘어 많이 개선됐지만 147만 명의 시간제 비정규직은 여전히 가입 대상자이면서 미가입자인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간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표 9 참조). 지난 10년간 미가입률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 협회·개인서비스다. 반면 숙박음식과 건설업은 실질적 사각지대의 개선이 더디다. 2024년 기준 숙박음식에서 사각지대는 전년보다 4.2%p 감소했지만 미가입자 비율은 72.8%로 높은 수준이다. 시간제 비정규직 건설업 근로자도 미가입자 비중이 64.9%다. 숙박음식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근속기간이 타 업종에 비해 짧고 입·이직이 잦아 가입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는 일일 근로자 비중이 47.9%로 높은 것도 가입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⁸⁾

2024년 전일제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은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늘었고 정규직과의 격차도 줄었다(표 10 참조). 전일제 비정규직의 10년 전 대비 퇴직금 및 상여금 수

〈표 9〉 주요 업종별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비율 및 평균 근속기간 : 2024년, 시간제 비정규직

(단위 : 천 명, %, %p)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협회·개인 서비스
	(C)	(F)	(G)	(I)	(N)	(O)	(P)	(Q)	(R)	(S)
가입 대상자 수	144	109	365	621	140	101	384	474	101	109
미가입자 수	65	71	194	452	61	37	210	91	60	50
미가입자 비중	45.1	64.9	53.1	72.8	43.6	36.8	54.7	19.1	59.6	46.1
1년 전 대비	-3.2	-1.9	-5.0	-4.2	4.5	-10.1	-4.5	4.1	-14.7	-7.4
10년 전 대비	-35.8	-13.4	-30.2	-17.2	-4.1	-6.1	-25.9	-15.1	-23.4	-46.1
평균 근속기간(개월)	54.0	25.5	37.7	13.4	35.2	32.2	36.9	35.8	21.0	43.7

주 : 2024년 기준 적용 대상자가 10만 명 이상인 업종으로 한정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8) 일일 근로자이면서 시간제인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1%인 반면 일일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건설업 근로자의 가입률은 56.7%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낮은 일용직 건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2024. 10. 9).,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8149400530>).

혜율 증가폭은 정규직보다 낮았다. 유급휴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10년 전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간외수당은 정규직에서도 수혜자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가장 작다.

근로복지가 적용되는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수혜율은 여전히 낮다. 특히 시간제 비정규직 수혜율은 모든 근로복지 항목에서 전일제 비정규직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제 비정규직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근로복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1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복지 수혜율 및 변화

(단위 : %, %p)

		2024년	1년 전 대비	10년 전 대비
퇴직금	정규직	95.6	1.1	13.5
	전일제 비정규직	62.7	1.7	10.1
	시간제 비정규직	30.3	2.2	17.1
상여금	정규직	89.0	0.9	5.4
	전일제 비정규직	54.1	1.3	2.8
	시간제 비정규직	26.2	1.4	9.6
유급휴가	정규직	86.9	1.3	13.1
	전일제 비정규직	57.6	2.8	13.8
	시간제 비정규직	20.0	2.2	11.7
시간외수당	정규직	68.7	0.9	9.8
	전일제 비정규직	44.0	2.6	12.0
	시간제 비정규직	19.8	1.4	1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4년 노동조합 가입자는 정규직에서 증가했다(표 11 참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비율은 전년대비 2.0%p 증가했고 그 중 0.7%p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반면 증가한 2.0%p에서 0.9%p는 가입 자격이 존재함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4년 기준 전체 정규직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늘어날 여력이 아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일제 비정규직 중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은 20.6%다. 지난 10년간 1.8%p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24년 증가폭도 0.2%p로 낮아 정규직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느린 편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전일제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한 2024년 늘어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대부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전일제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년과 동일했다.

시간제 비정규직도 2024년에는 노동조합 가입률 증가가 저조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노동조합 가입으로 이어진 비율은 0.1%p에 불과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했다.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비정규직이 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1〉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 및 변화

(단위 : %, %p)

		2024년	1년 전 대비	10년 전 대비
정규직	노동조합 있음	35.5	2.0	4.7
	노동조합 가입	18.4	0.7	1.4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 아님	6.1	0.4	0.3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음	11.0	0.9	3.1
전일제 비정규직	노동조합 있음	20.6	0.2	1.8
	노동조합 가입	4.6	0.0	0.4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 아님	11.7	0.2	-0.3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음	4.2	0.0	1.7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조합 있음	10.8	0.7	-4.3
	노동조합 가입	1.3	0.1	0.4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 아님	7.6	0.3	-5.7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음	1.9	0.3	1.0

주 : 각 근로형태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IV. 맺음말

2024년 8월 실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조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 증가는 여성,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컸다. 세부근로형태별로 보면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가 큰 폭 증가했다.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특히 시간제인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 시간제인 반복갱신 근로자도 증가했는데, 반복갱신 근로자는 최근 임시직,

시간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고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도 여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2024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확대됐지만, 비정규직을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하면 전일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3년째 좁혀졌다. 시간제 비정규직도 신규 취업자를 제외하면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일제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증가했다. 시간제 비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근로복지 수혜율은 전일제와 시간제 비정규직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았다. 2024년 전일제와 시간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늘었으나 실제 가입률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KLI**

〈부록〉 통계청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정의

통계청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의한다.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다.

		용어 설명
비정규직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기간제	- 반복갱신 :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 기대불가 : 계약 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	용역 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특수형태 근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함.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 내 근로	채택근무, 가내 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
	일일(단기) 근로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자료 : 통계청(2024),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